

사토 요시미 기념관

아동 문학가·작사가인 사토 요시미(佐藤義美, 1905-1968)는 평생에 걸쳐 3,000 점 이상의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. 사토의 고향인 다케타시에 있는 이 기념관은 노년을 보낸 가나가와현 즈시시의 자택을 모델로 삼았으며, 복고풍의 서양 목조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. 관내에는 사토의 작품 외에도 재즈 레코드와 옷 등 사토가 애용하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토의 생활 방식도 엿볼 수 있습니다.

1905년에 다케타 지역에서 태어난 사토는 7세 때 일가족이 가고시마로 거처를 옮겼으며, 14세 때 다시 다케타 지역으로 돌아와서 1년을 보낸 후 요코하마로 이주했습니다. 그리고 사토는 이후 평생을 가나가와와 도쿄에서 지냈습니다. 도쿄의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한 사토는 T. S. 엘리엇과 W. H. 오든 등 서양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. 초기 작품은 동요부터 현대시까지 다양했으며, 전쟁 반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도 발표했습니다. 그러나 1930년대부터 40년대 당시 일본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사상을 주제에서 수상하게 되었고, 사토의 작품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.

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토는 예전부터 가장 흥미가 있던 아동 문학 창작에 전념했습니다. 사토는 아동 문학의 예술성을 높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. 이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 길 잊은 새끼 고양이를 상대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그린 사토의 대표작 『강아지 경찰 아저씨』입니다. 이 노래는 오늘날에도 사랑받고 있습니다.